

서울 시내 탁아기관의 급식 관리 실태 평가

곽동경 · 양일선 · 이해상* · 김성희 · 문혜경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탁아기관에서 행해지는 급식의 운영 실태 및 식단을 분석함으로써 탁아기관 급식의 시설수준, 전반적인 위생상태 및 식단의 영양적 균형상태 등을 평가하여 표준식단의 개발과 급식시설 표준화 방안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은 기초 관리 실태조사와 유형별 세부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는 관리 실태 조사지, 기기 및 시설의 점검표와 위생 상태 평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 탁아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직접 탁아기관을 방문하여 원장 및 취사부와의 면담과 조사자의 관찰에 의해 작성되었다. 유형별 세부조사는 탁아기관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1개의 탁아기관에서 급식식단의 영양적 균형, 섭취량, 급식의 수용도 등을 조사, 평가하고 미생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급식수가는 국공립 탁아기관의 경우 431-476원, 직장탁아는 750원, 대학 및 재단부설 유아원은 1,300원이었으며, 간식수가는 국공립 탁아의 경우 308-319원, 직장탁아의 경우 525원, 대학 및 재단부설 유아원은 940원으로 유형별 차이가 심했다. 식단 작성은 대부분 영양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구매 역시 주로 원장이나 취사부가 담당하고 있었고, 구매 방법은 직장 탁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구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방과 식당의 위생상태는 보통상태 (2.0점)였고, 종업원의 위생습관은 잠재적 불량상태 (1.3점)로 평가되어, 위생상태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탁아기관 급식식단을 영양분석한 결과 열량은 권장량(RDA/3)의 42.3-86.5%에 불과했고 단백질도 최저 65.4%에 불과했다. 다른 영양소의 경우도 권장량의 50%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아들이 제공되는 급식을 전부 섭취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영양부족이 예견된다. 탁아기관 중식의 잔식율은 국류나 야채류의 경우 특히 높아 계란국, 무우된장국, 김치, 호박전, 가지나물, 콩나물 등은 잔식율이 50%이상 되었으나, 일품요리인 불고기밥, 짜장밥, 짜장면 등은 잔식율이 낮아 10%미만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검사 결과, 식판은 모든 탁아기관에서 표준 평판균수 500 CFU/100cm²미만이고 대장균 균수도 10 MPN/100cm²미만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도마의 경우는 대학 및 재단 부설 유아원을 제외하고는 표준 평판균수 1.9x10⁴-2.0x10⁵ CFU/100cm²이고 대장균 균수 1.9x10²-1.9x10⁴ MPN/100cm²으로 모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도였다. 음식의 경우는 대부분 양호했으나 절임 무채와 샐러드의 경우는 대장균 균수가 10⁵ MPN/g 이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국공립 탁아의 경우에는 밥도 대장균 균수가 10⁵ MPN/g 이상으로 나타났다.